

부 고

마리아 니다 MARIA NILDA 수녀

ND 5897



닐다 로사리오 소우자 Nilda Rosário SOUZA

브라질, 파소 폰도, 과달루페 성모 관구

출 생: 1939 년 10 월 26 일 RS, 카사과바 도 술  
서 원: 1969 년 2 월 11 일 RS, 카노아스  
사 망: 2026 년 3 월 26 일 RS, 카노아스, 레칸토 아파레시다  
매 장: 2026 년 3 월 26 일 RS, 카노아스, 수녀원 묘지

“네 길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분께서 몸소 해 주시리라.” (시편 37,5)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리아 니다 수녀를 하느님께 돌려드린다. 수녀는 소박한 삶과 57 년간 서원에 대한 충실함으로 노틀담 수녀회에 큰 선물이 되어 주었다. 특히 성모님께 대한 수녀의 깊은 신심은 놀라울 정도였다. 묵주는 수녀의 충실한 동반자였으며, 특히 마지막 몇 년 동안은 묵주기도를 통해 평화와 위안을 얻었다.

마리아 니다 수녀는 공동체에 활기를 불어넣는 사람이었다. 다가가기 쉽고 언제나 기꺼이 도움을 주며, 잔치와 춤을 몹시 좋아했다. 수녀의 쾌활함과 즉흥성은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되곤 했다. 삶의 소소한 것들에서 기쁨을 찾았고, 아이들을 사랑했으며, 소박한 모습으로 아이들을 쉽게 끌어 모았다. 빨대에 싸인 흑설탕 사탕이나 고구마 하나 같은 작은 선물에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지곤 했다. 여행도 좋아해서 어떤 초대든 감사히 받아들였다.

닐다 로사리오 소우자는 1939 년 10 월 26 일 카사과바 도 술에서 베르콘실 데 소우자와 파리스 실베이라 데 소우자의 딸로 태어났다. 10 남매 중 아홉째였으며, 형제자매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다. 어린 시절부터 작은 가족 농장에서 일했고, 나중에는 상세페에 있는 마드레 줄리아 학교에서 거주도우미로 일하며 가족을 도왔다. 닐다는 식구들을 매우 사랑했고, 나중에는 가능한 한 자주 방문했다. 가족들은 특히 닐다가 병에 걸렸을 때 애정 어린 마음으로 보살펴 주었다.

상세페에서 노틀담 수녀회 수녀들과 함께 생활하던 중 수도 생활에 대한 성소와 수녀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갈망이 생겨났다. 깊은 식별과 인내 끝에 젊은 나이에 수도회에 입회한 닐다는 수련기를 마친 후 학업을 재개하여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교사 양성 과정(1974 년)을 수료했으며, 과학 학위(1975 년)를 취득했다.

닐다 수녀는 헌신과 아낌없는 봉사로 다양한 사도직에 참여했는데, 특히 타쿠아라의 산타 테레시나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활동했다. 이후에는 교리 교육, 전례, 성체 분배 및 희망 그룹 봉사, 가정 및 병자 방문, 성소자 증진 활동, 세라 인터내셔널 무브먼트 참여 등 사목 활동에 전념했다.

마리아 니다 수녀는 나이가 들면서 병과 노쇠로 기억력과 움직임에 한계를 보였다. 2023 년부터 카노아스의 레칸토 아파레시다 공동체에서 생활하며, 방문객들의 따뜻한 마음과 작은 애정 표현에서 큰 기쁨을 얻었다. 최근 몇 년 동안 거동이 불편해지고 여러 차례 입원 치료를 받았다. 수녀는 소박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친절하고 밝은 수도자에 대한 기억을 남기고 3 월 26 일 새벽, 향년 86 세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 하느님 곁으로 갔다.

마리아 니다 수녀가 평화의 안식을 얻으며 우리를 위해 전구해 주기를.